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7.14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03.4원 (+2.00원)

KOSPI

6,806.93 (-669.01, -8.95%)

KOSDAQ

799.36 (-38.07, -4.55%)

국고채 10년 금리

4.263 (-0.03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코스닥 액티브, 현대차TOP3 채혼, 미 우주&로봇 채혼 [박승진]
New K-ETF	코스피200 커버드콜 액티브 [박승진]
DIN (Doo It Now)	약세장이 아니라, 재가격화다 [김두언]
하나채권	[7월 금통위 프리뷰] 반응 함수에 변화가 없다면, 긴축 기조도 마찬가지로 [박준우]
주간 하나채권	[7월 3주] 고금리 테스트 시작 [박준우,허성우]

기업분석

KT	2Q 프리뷰 - 배당 증가 기대감 낮아질 전망 [김홍식]
에이블씨엔씨	글로벌 모멘텀 본격화 [박중대]
금호석유화학	2026년 이익 증가율 YoY +91% vs. 주가는 제자리 [윤재성]
현대모비스	2분기 프리뷰: 부합 전망. 로봇 부품도 일정대로 진행 [송선재]
한국전력	정책 방향이 바뀐다 [유재선]
대한항공	2Q26 Re: 유류비가 두배인데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 [안도현]

Weekly

건설	격화된 이란 분쟁, 비우호적 환경 [김승준, 하민호]
----	-------------------------------

글로벌리서치

기가다바이스	글로벌 공급 공백으로 급성장 중인 레거시 메모리 기업 [백승혜]
델타항공	모든 비용이 높아지며 LCC 대비 우위 [김시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SDI, 대한항공, 삼양식품, 키움증권, 에이블씨엔씨, 심텍, 올릭스

하나증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7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코스닥 액티브, 현대차TOP3 채혼, 미 우주&로봇 채혼

신규 상장 ETF(7/14): DS 코스닥 액티브, KIWOOM 현대차그룹TOP3채권혼합50, RISE 미국 우주&로봇TOP2 미국채혼합50

DS 코스닥 액티브: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코스닥 지수 기반의 액티브 ETF이다. 7월 현재 1800여개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상관계수 0.7의 조건을 유지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을 비롯하여 포트폴리오의 약 60% 비중을 시가총액 1조원 미만인 중소형주로 구성한다. 액티브 운용 ETF의 특성을 살려 유망종목 선별 후 집중 투자를 통해 지수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과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1.0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KIWOOM 현대차그룹TOP3 채권혼합50: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과 채권을 함께 편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ETF이다. 완성차 제조부터 로보틱스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피지컬AI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주요 기업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단기 채권 포트폴리오를 50 대 50 비중으로 혼합하여 투자한다.

상장일(7/14) 기준 현대차 그룹 TOP3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현대차(시총 1위)와 기아(시총 2위), 현대모비스(시총 3위)가 편입한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25%, 15%, 10%의 비중이 할당된다. 채권 포지션은 잔존만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국고채와 통안채 가운데 발행잔액 기준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한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매년 2회(6월/12월)에 걸쳐, 채권 포트폴리오는 매월마다 정기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구조이다.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편입 가능한 ETF 종목이 되겠다. 총 보수는 0.15%이다.

RISE 미국 우주&로봇TOP2 미국채혼합50: 미국의 우주산업과 로봇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2개 종목과 미국 단기국채 ETF를 조합한 채권혼합형 ETF이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우주산업과 로봇산업 대표 기업에 각각 25%씩 할당해 총 50%의 비중으로 구성하며, 채권 포트폴리오는 잔존만기 1년 이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 가운데 총 자산 규모(AUM) 기준 상위 8개 종목을 편입하여 구성한다.

상장일(7/14) 기준의 우주산업 대표 종목으로는 SpaceX를, 로봇산업 대표 종목으로는 Tesla를 편입한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거래일이 경과한 후 정기 리밸런싱을 실시하며, 채권 포트폴리오는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의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편입 가능한 ETF 종목이다. 총 보수는 0.13%가 적용되는 채권혼합형 패시브 ETF이다.

도표 1. DS 코스닥 액티브, KIWOOM 현대차그룹TOP3채권혼합50, RISE 미국 우주&로봇TOP2 미국채혼합50 ETF의 종목 개요

ETF명	DS 코스닥액티브	KIWOOM 현대차그룹TOP3채권혼합50	RISE 미국우주&로봇TOP2미국채혼합50
상장일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코스닥 지수	FnGuide 현대차그룹TOP3 채권혼합 지수	Akros 미국 우주-로봇 TOP2 미국채혼합50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실물(패시브)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1.00%	0.15%	0.13%
구성종목 수	1,800종목 ('26.4월말 기준)	- 주식 : 3종목 - 채권 : 10종목	10종목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방식	▣ 주식 50%, 채권 50% - 주식 : 시총 1위 25%, 2위 15%, 3위 10% - 채권 : 동일가중방식	▣ 미국 우주-로봇 TOP2 하위지수(50%) - 편입 대상 선정된 2개 종목을 각 25% 편입 ▣ 미국 단기채ETF 하위지수(50%) - 잔존만기 1년 이하 미국 국채 투자 성과 추종 ETF 중 AUM 상위 3종목 각 25% - 잔존만기 1년 초과 3년 이하 미국 국채 투자 성과 추종 ETF는 각 1%, - 그 외 잔여 비중을 동일가중으로 배분
정기변경	해당사항 없음	▣ 주식, 채권비중 일별 리밸런싱 - 주식 : 연 2회 (6월, 12월) - 채권 : 연 12회 (매월)	▣ 미국 우주-로봇 TOP2 하위지수 - 매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후 ▣ 미국 단기채ETF 하위지수 -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후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코스피200 커버드콜 액티브

신규 상장 ETF(7/14)

- KODEX 200 커버드콜 액티브

KODEX 200 커버드콜 액티브: 국내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이다.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하는 시장 대표 종목들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커버드콜 포지션에서는 옵션 비중 조절 전략이 활용되는 액티브 운용방식의 대표 지수 커버드콜 ETF 종목이 되겠다.

비교지수로는 '코스피200 커버드콜 5% OTM 지수'가 활용된다. 주식 포트폴리오와 함께 활용되는 코스피200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경우, 코스피200 콜옵션 가운데 직전 결제일 기준 코스피200 지수보다 행사가격이 5% 이상 높은 종목을 매도 대상으로 선정한다. 상기 종목들 가운데 현재 코스피200 지수와 행사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현재 지수에 가장 가까운) 콜옵션 종목을 선택한다. 만약 동일한 차이를 가진 종목이 두 개라면 두 종목을 모두 편입하며, 한 종목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더 높은 종목을 선정한다.

액티브 ETF인 만큼 커버드콜 포지션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한다. 상승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 비중을 축소하거나 만기가 먼 옵션을 활용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커버드콜 포지션 비중을 확대하면서 행사가가 높은 옵션을 매도하는 방식들로 운용되는 등의 형태이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도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 선별하여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을 병행한다.

국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 차익은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마찬가지로 옵션 매도 포지션의 프리미엄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적인 월 배당을 추구하는 ETF 종목이다. 총 보수는 0.50%이다.

도표 1. KODEX 200 커버드콜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상장일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비교지수	코스피 200 커버드콜 5% OTM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50%
구성종목 수	주식 200종목 및 옵션 2종목 ('26.6월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 주식: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 옵션: 기초자산 규모의 100%에 해당하는 명목금액만큼 콜옵션을 매도
정기변경	- 하위지수: 연 2회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일 최종거래일 다음날) - 콜옵션: 코스피200 지수 콜옵션의 매 결제일 거래 최종거래일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2026년 7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DIN (Doo It Now)

약세장이 아니라, 재가격화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조정은 약세장의 시작보다, 1차 상승 이후 가격과 수급이 균형을 다시 찾는 재가격화 과정에 가깝다. 외국인 매도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개인 유동성 둔화가 지수의 복원을 늦추고 있지만 반도체 이익의 방향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SK하이닉스 ADR은 한국의 메모리 기업이 미국에서 AI 인프라 자산으로 다시 가격을 받는 첫 시험대다. ADR 프리미엄과 메모리 이익이 유지된다면, 이번 조정은 강세장의 끝이 아니라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여주사(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전략은 유효하다.

한국 증시는 지금 분수령에 서 있다. 메타발 AI 수요 둔화 우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유가와 금리의 재상승 가능성이 동시에 할인율을 높이고 있다. 외국인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부담도 다시 부각됐다. 개인은 조정 국면에서 매수에 나섰지만, 고객예탁금 감소는 추가 매수 여력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지금 시장의 문제는 이익보다 수급에 있다([DIN_260707 참고](#)).

그러나 메타발 우려를 AI 수요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 시장이 묻기 시작한 것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 회수 속도다. AI 인프라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 효율성과 수익화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의 소멸보다 평가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반도체 업황도 아직 정점을 말하지 않는다. WSTS(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에 따르면 2026년이 성장률의 정점일 수는 있어도, 매출과 수요의 정점은 아니다. 2027년에는 성장 속도가 낮아질 뿐 절대 시장 규모는 다시 확대된다. 성장을 둔화와 업황 하강은 같은 뜻이 아니다.

이 간극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SK 하이닉스 ADR이다. ADR 공모에는 약 1,715 억달러의 주문이 몰렸고, 발행 규모 대비 경쟁률은 7 배에 달했다. 공모가 역시 직전 서울 주가의 환산가격보다 약 2.9%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통상적인 해외 증자가 할인 발행되는 것과 달리, SK 하이닉스는 할증 발행에 성공했다. 이는 미국 투자자가 SK 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주가 아니라 HBM 중심의 AI 인프라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프리미엄의 조건도 갖췄다. SK하이닉스 ADR의 본주 대비 비중은 약 2.4%로, TSMC ADR의 약 20%보다 낮다. 두 수치는 신규 발행과 누적 ADR 비중이라는 점에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 시장의 잠재 수요에 비해 초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한국은 본주와 ADR 간 전환도 홍콩보다 복잡해 차익거래가 즉시 작동하기 어렵다. 수요가 강할 경우 프리미엄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연 kimdooun@hanafn.com
주식시황 RA 최욱 wookchoi@hanafn.com

2026년 7월 13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채권

[7월 금통위 프리뷰]

반응 함수에 변화가 없다면, 긴축 기조도 마찬가지

- 과거 포워드 가이드의 부작용을 지적했던 신 총재. 지금은 긴축 신호를 강하게 제시
- 한은의 반응 함수를 고려할 때, 긴축 가이드스가 약해질 근거가 부족
- 7, 8월 연속 인상 우려 완화되더라도 국채 금리는 여전히 상방 리스크 우위

Fed/ECB와 달리 한은의 선제적 가이드스는 분명

글로벌 통화정책의 화두는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와 반응 함수(reaction function)다. 위시 연준 의장은 포워드 가이드스 폐기를 시사했다. 더 나아가 어떠한 변수들이 통화정책(기준금리)을 결정하는지, 즉 반응함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꺼리고 있다. 그는 금융 시장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 후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 중앙은행이 시장의 '가격(신호)'을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라가르드 ECB 총재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신티라 포럼에서 포워드 가이드스의 가치는 감소했으나 'Framework(=반응함수)' 가이드스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ECB는 시나리오 분석을 강화하면서 명시적인 가이드스보다 반응함수를 중심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사실 위시의 포워드 가이드스 폐기 주장은 신현송 총재의 과거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과거 신 총재의 대표적인 연구의 결론은 중앙은행의 '공공 신호'는 경제 주체들의 과잉 반응을 유발하여 사회적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신호의 정확도가 낮을수록 그 현상이 심화된다. 통화정책 용어로 다시 쓰면,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가이드스(공공 신호)를 제공하면 금융시장이 그 정보에 과도하게 반응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시장의 가격이 중앙은행의 가이드스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앙은행은 시장으로부터 유용한 신호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신현송 총재가 취임한 이후 한국은행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강력한 가이드스를 제시하고 있다. 5월 점도표를 시작으로 한은 총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긴축 기조를 강조했다. 부작용을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신 총재가 가이드스를 강하게 제시하는 이유는 현재 '반응 함수'를 고려할 때 긴축 가이드스가 틀릴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반응 함수가 바뀌지 않으면, 긴축 기조가 악화될 유인도 제한적

금주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예상된다. 채권시장은 인상보다 총재의 긴축 가이드스에 집중하고 있다. 한은이 가이드스를 강하게 제시해온 만큼 가이드스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다만 한은의 반응 함수를 고려할 때, 긴축 기조가 악화될 유인은 제한적이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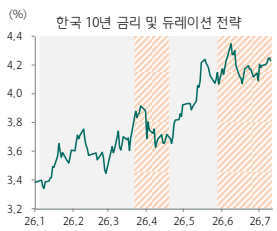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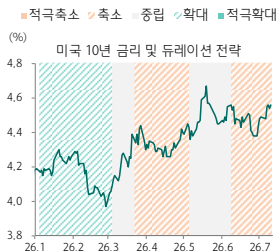
2026년 7월 13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한국			

주: 6/8 기준. ●는 직전(6/4) 전망



주간 하나채권

[7월 3주] 고금리 테스트 시작

- 유가 반등과 AI 수요 압력에 글로벌 금리 상승. 수요 충격 나타나야 금리도 반락 가능
-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는 통화정책 긴축 강도가 경기를 꺾기에 충분치 않다는 신호
- 주식/크레딧 약세,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등 둔화 시그널 나타나기 전까지 보수적 대응

Weekly Viewpoint

글로벌 금리가 다시 오름세다. 미국, 한국 10년 금리는 각 4.5%, 4.2%를 넘어섰다. 금리 상승의 표면적 이유는 유가 반등이다. 그런데 유가가 하락할 때 금리 낙폭이 작았던 것처럼 유가 반등할 때 금리 상승 폭은 유독 더 큰 상황이다. 지난주는 정치/재정 리스크로 프랑스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도표 5, 6]. 다만 큰 그림에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 견조한 성장 전망에 금리 하단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적절해 보인다.

미국은 6월 고용 지표 부진에도 수요 회복 기대는 유효하다. 지난주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중 고용 지수가 51.2pt로 상승해 4개월만에 50을 상회했고, 뉴욕 연은의 서베이 결과 가계의 1년 후 근로소득 증가율 기대도 2.8%로 전월보다 높아졌다 [도표 2, 3]. '[7월 2주] AI 발전이 수요를 자극할 위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AI 관련 수요 확대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지난주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과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 AI 관련 투자 등이 수요를 끌어올리고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완화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도 에너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관련 인플레이션 요인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언급했다.

금주 6월 CPI에서도 헤드라인보다 IT 항목 등 근원 재화(Goods), 더 나아가 비주거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미국 10년 BE는 이란 사태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도표 27]. 금리가 하락하려면 상당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돼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에너지 제외 항목의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비대칭적으로 높다.

한국 채권시장도 비슷한 환경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AI 하드웨어 수출 국가로 성장 전망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 [도표 4]. 게다가 수출 호조가 반도체 중심에서 다른 산업들로 확산되고 있다. 수요가 예상보다 강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행은 금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전망이다. 성장, 물가, 환율, 부동산 모든 요인이 긴축을 가리키고 있다는 한은의 판단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물가에 대해 수요 측 압력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유가 하락에도 긴축 기조는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월 금통위 프리뷰] 반응 함수에 변화가 없다면, 긴축 기조도 마찬가지' 참고).

2026년 07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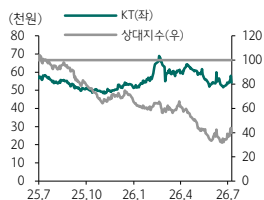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76,000원
현재주가(7.13) 52,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6.93
52주 최고/최저(원)	68,900/48,250
시가총액(십억원)	13,281.5
시가총액비중(%)	0.22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67.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6.8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연대자동차 외 1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7,699.5	28,298.0
영업이익(십억원)	2,065.3	2,250.3
순이익(십억원)	1,521.7	1,664.8
EPS(원)	5,660	6,197
BPS(원)	78,023	81,72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6,431.2	28,244.2	28,476.5	29,501.7
영업이익	809.5	2,469.1	1,966.3	2,079.2
세전이익	584.7	2,418.1	2,012.9	2,124.4
순이익	470.3	1,731.0	1,417.1	1,515.7
EPS	1,850	6,869	5,623	6,014
증감율	(52.41)	271.30	(18.14)	6.95
PER	23.70	7.66	9.64	9.01
PBR	0.67	0.73	0.71	0.68
EV/EBITDA	4.31	3.63	3.80	3.54
ROE	2.85	10.22	7.77	7.86
BPS	65,177	71,886	76,516	80,263
DPS	2,000	2,400	2,400	2,4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KT (030200)**2Q 프리뷰 – 배당 증가 기대감 낮아질 전망****투자의견 매수/12개월 목표가 76,000원 유지, 박스권 등락 전망**

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76,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2027~2028년 장기 실적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고, 2) 규제 상황이 개선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3)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단기 주가 상승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닝 시즌인 7~8월엔 가격 메리트에 입각한 박스권 트레이딩을 추천한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 5,620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KT 연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6,090억원)를 하회할 전망이다. KT에 스테이트/KT클라우드를 비롯한 자회사 실적이 우수한 기초를 유지할 전망이다. 본사 실적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KT 2분기 본사 영업이익은 3,820억원(-18% YoY, +22% QoQ)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T 기존 전망치인 2분기 연결영업이익 5,620억원(-45% YoY, +16% QoQ)을 유지한다. 실적 부진 사유는 1) 5G 가입자 이탈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감소, 2)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증가, 3) 높은 기저로 인한 부동산 분양 이익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물론 아파트 분양 수익이 급증했던 지난해 2분기대비 이번 연결 영업이익 감소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고객 감사 패키지 제공 영향이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KT 서비스매출액 동향과 영업비용이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닐 것이라 내용상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올해 별도 순이익 1조원 수준 전망, 당분간 DPS 증가 기대하긴 어려울 듯

상반기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보면 2026년 KT 본사 순이익은 1조원 수준이 예상된다. 올해 배당금이 6천억원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배당 성향은 60% 수준이다. 회사 경영 정책이 2026년 최소 DPS 2,400원(총 배당금 6천억원), 2026~2028년 장기로는 본사 조정 이익 기준 50%를 주주에게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환원하는 것이라 아쉽게도 2027년까지는 배당 증가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고객 감사 패키지 영향이 제거되겠지만 5G 보급률 정체와 인건비 및 경비 증가 부담을 감안하면 2027년 본사 순이익 20% 이상을 장담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배당 성향의 추가 상향 조정이 없다면 2025년 DPS 2,400원이 2026~2027년까지 유지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국내외 시중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Not Rated

현재주가(7.13)

9,87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6.93
52주 최고/최저(원)	15,850/8,660
시가총액(십억원)	256.8
시가총액비중(%)	0.00
발행주식수(천주)	26,014.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0.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
외국인지분율(%)	11.04
주요주주 지분율(%)	
리프터비인 외 1인	61.6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248	274	239	242
영업이익	10	11	18	18
세전이익	6	9	13	18
순이익	1	6	15	14
EPS	35	234	559	543
증감율	흑전	568.6	138.9	(2.9)
PER	149.7	28.9	12.5	19.3
PBR	1.1	2.0	2.0	2.9
EV/EBITDA	6.1	7.8	6.3	10.2
ROE	0.8	7.0	15.9	16.3
BPS	4,669	3,371	3,509	3,660
DPS	0	1,427	411	437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2026년 07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에이블씨엔씨 (078520)**글로벌 모멘텀 본격화****2분기 영업이익 95억원(YoY 32%) 추정**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 32% 성장한 653억원과 95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지역 매출이 YoY 150%, 48%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 비중은 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YoY 매출 저하는 국내 사업 채널 구조조정 때문으로 국내 사업을 제외하면 YoY 32% 매출 성장이다. 미국은 아마존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프라이머데이 매출은 전년 대비 35% 성장했다. 다만, 제품 리뉴얼 때문에 틱톡샵 매출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QoQ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동부/서부를 막론하고 신규 거래처가 빠르게 늘고 있다. BB크림과 마스크에 이어 PDRN NAD 크림도 선보일 계획이다.

3분기 QoQ 성장 지속할 듯

3분기와 4분기 QoQ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BB크림 리뉴얼을 마무리하면서 마케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셀럽 마케팅과 함께 틱톡샵 매출 회복과 오프라인 채널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1분기부터 코스트코에 입점했고, 얼타뷰티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을 조을 중이다. 유럽은 오리엔트레이드 이외 실리쿤투 등 대형 벤더들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더글라스/부츠/DM/세포라까지 입점하고 있다. 특히, 6월말 부츠 입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모멘텀 본격화 시기, 현저한 저평가

에이블씨엔씨는 전년도 4분기 BB크림이 아마존 뷰티 톱 100에 진입한 이후 지역 및 온오프라인 채널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여러 레거시 브랜드 업체들이 마케팅비를 크게 늘리면서 신세대 인디브랜드 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에이블씨엔씨는 마케팅에 본격 돌입한지 채 6개월이 안돼 성과를 냈고, 매출이 크게 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 히트 이후 오프라인 채널과 유럽 지역으로 확산하는 K뷰티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현재 주가는 MF PER 7.8배로 매출과 이익이 동반 고신장하는 글로벌 모멘텀 본격화 시기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저평가 상태다. BB크림 이후 후속 카테고리의 성공적인 론칭이 가시화된다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이 될 수 있겠다.

2026년 07월 14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180,000원
현재주가(7.13) 117,4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6.93
52주 최고/최저(원)	153,400/103,600
시가총액(십억원)	2,953.5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25,157.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8.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6
외국인지분율(%)	27.66
주요주주 지분율(%)	
박철한 외 13 인	30.19
국민연금공단	9.8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7,405.0	7,401.3
영업이익(십억원)	390.5	443.0
순이익(십억원)	420.2	456.0
EPS(원)	14,797	16,168
BPS(원)	260,295	275,83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155.0	6,915.1	7,811.9	8,135.4
영업이익	272.8	271.8	518.3	586.6
세전이익	407.6	348.8	717.7	790.2
순이익	348.6	290.9	545.4	600.6
EPS	11,321	9,843	19,227	21,312
증감율	(18.44)	(13.06)	95.34	10.84
PER	8.00	12.26	6.11	5.51
PBR	0.45	0.56	0.49	0.45
EV/EBITDA	5.09	5.52	3.48	2.87
ROE	5.88	4.74	8.40	8.55
BPS	199,918	215,808	240,312	260,087
DPS	2,200	1,700	1,700	1,70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금호석유화학 (011780)**2026년 이익 증가율 YoY +91% vs. 주가는 제자리****2Q26 영업이익 컨센 49% 상회 추정**

2Q26 영업이익은 2,084억원(QoQ +251%, YoY +220%)으로 컨센(1,401억원)을 49% 상회할 전망이다. BD 등 원료가 급등분을 평가에 전가하면서 합성고무 중심의 실적 개선이 나타난 덕이다. 금융비용 발생이 전무한 상황에서 MDI의 강세에 따른 지분법이익 575억원(QoQ +57%)이 반영되며 지배순이익은 2,023억원으로 컨센(1,669억원)을 21% 상회할 전망이다. 합성고무 영업이익은 898억원(QoQ +503%)을 추정한다. NBL/BR/SBR이 공급부족에 따른 평가 급등이 나타난 영향이다. 페놀사업부 영업이익은 193억원(QoQ +278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3Q26 영업이익 QoQ -43% 감소. 부정적 래깅효과 영향

3Q26 영업이익은 1,197억원(QoQ -43%, YoY +42%)로 전분기 대비 감익을 예상한다. 전 사업부의 감익이 추정된다. 최근 평가 하락 국면에서 높은 원가가 투입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역래깅 효과 때문이다. 합성고무 영업이익은 255억원(QoQ -72%)을 전망한다. 최근 BD는 고점 대비 대비 -60% 하락했으나, 수출판가 기준 NBL -42%, SBR -15%, BR -17% 하락에 불과해 마진은 1Q26 대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천연고무 가격과 글로벌 장갑 공급 부족 상황, SBR/BR의 제한된 증설 등을 감안할 때 합성고무의 감익이 나타나더라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실적의 저점이 확인될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이익 증가율 YoY +91% vs. 주가는 제자리

BUY, TP 18만원을 유지한다. 2026년 영업이익은 5,183억원으로 YoY +91% 개선을 추정하나, 주가는 YTD -3%로 부진하다. 유가 급등에 따른 매크로 리스크, BD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 역래깅 효과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영향이다. 하지만, 주요 제품 NBL 94.6만톤, SBR/BR 53.8만톤, MDI 61만톤, 에폭시 34만톤 모두 사이클 회복 국면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이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특히, 라텍스 장갑은 코로나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폐기 처분되며 재고가 대부분 소진됐고, 이에 따라 전방업체의 가동률이 대폭 상향되고 있다. 참고로, 말레이 Top Glove는 1년 만에 가동률이 58%에서 80% 대로 대폭 상향되었다. SBR/BR 마진(Spot)은 연중 최대치를 기록 중인데, 이는 제한된 공급 덕분이다. 향후 재건 수요 발생 과정에서 대형 트럭용 타이어 수요 증가 시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최근 MDI 수출가격 강세도 눈에 띈다. 한국 MDI 수출가격은 YTD +35% 상승했다. 미국 Covestro와 Dow의 불가항력 선언, 2026년 중국업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85~159% 부과 등에 따른 미국향 수출 확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침 MDI는 글로벌 증설이 2026~27년 전무한 구간에 진입해 지분법 자회사 금호미쓰이화학의 실적 개선폭도 뚜렷할 전망이다. 2026년 순현금 규모 확대에 따른 건전한 재무구조 및 추정 ROE 8%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PBR 0.5배/PER 6배) 등을 감안하면 절대 저평가 구간이다. 원료 BD, 대체재 천연고무, 주요 제품 합성고무 모두 사이클 초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추정치는 추가 상향 여지가 높다. Cyclical 업체가 사이클 초입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췄다.

2026년 7월 14일 | 기업분석

BUY (유지)

목표주가(12M) 770,000원
현재주가(7.13) 487,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6.93
52주 최고/최저(원)	768,000/283,500
시가총액(십억원)	44,232.1
시가총액비중(%)	0.79
발행주식수(천주)	89,602.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01.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18.2
외국인지분율(%)	37.04
주요주주 지분율(%)	
가외 7인	32.70
국민연금공단	9.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5,214.0	69,726.6
영업이익(십억원)	3,723.5	4,245.9
순이익(십억원)	4,155.8	4,706.3
EPS(원)	45,949	52,424
BPS(원)	607,492	652,37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7,237.0	61,118.1	64,748.7	67,753.4
영업이익	3,073.5	3,357.5	3,644.1	3,919.4
세전이익	5,264.5	5,115.2	5,349.5	5,887.4
순이익	4,055.6	3,655.8	3,842.2	4,228.6
EPS	43,480	39,682	42,564	47,191
증감율	19.65	(8.74)	7.26	10.87
PER	5.44	9.40	11.47	10.34
PBR	0.47	0.68	0.83	0.78
EV/EBITDA	3.68	5.69	6.70	5.93
ROE	9.35	7.68	7.60	7.87
BPS	501,648	545,787	589,131	629,600
DPS	6,000	6,500	7,000	7,5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현대모비스 (012330)**2분기 프리뷰: 부합 전망. 로봇 부품도 일정대로 진행****자동차 핵심부품 및 로봇틱스 부품군으로 사업 재편 중**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BUY와 목표주가 77만원을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AS 부문의 호조로 기존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등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이 늘겠지만, 고객사들의 생산차질 해소와 볼륨 신차 및 친환경차의 출시, 그리고 높은 환율 등으로 외형 성장률이 확대되고, 관세 감소, 믹스 개선, 고객사로부터의 비용 회수 등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비핵심 제품의 축소와 핵심 및 로봇틱스 부품군의 확대도 본격화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범퍼와 램프 사업의 매각을 추진 중인데, 회수된 자금으로 전장/전동화/차량용 반도체/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하다. 로보틱스와 관련해서는 보스턴다이나믹스(BD)에 대한 지분가치 상승과 함께 로봇 부품의 직접 생산으로 사업 현금흐름 가치까지 기대된다. 현재 액추에이터부터 시작해서 그리퍼/배터리시스템/제어기/퍼셉션 모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BD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일정(2028년)을 맞추기 위해서는 2026년 하반기 이후 공장 건설 및 추가 아이템의 확정 등이 진행되고, 주가는 이를 반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Q26 Review: 영업이익률 5.6% 예상

2분기 실적은 기존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3%/6% (YoY) 증가한 16.4조원/9,220억원(영업이익률 5.6%, +0.1%p (YoY))으로 예상된다. 모듈/핵심부품 매출액은 1% (YoY) 증가한 12.7조원으로 예상하는데, 모듈조립/부품제조는 고객사 생산 감소(-3%)를 비계열 물량 및 고부가 제품의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등이 만회하면서 각각 0%/4% (YoY) 증가하고, 전동화 매출액은 믹스 하락에도 고객사 친환경차 물량 증가에 힘입어 2% (YoY)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AS 매출액은 9% (YoY) 증가한 3.63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선진국 수요가 유지되고 환율도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전체 영업이익률은 5.6%, 모듈/AS 각각 -0.3%/26.5%로 예상된다. 모듈에서는 완성차 물량 감소와 유럽 전동화 양산 초기 비용, 그리고 반도체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수익성에 부담을 주겠지만, 고객사와의 비용 정산 및 친환경차 생산 증가에 따른 전동화 부문의 적자 축소 등으로 전체 적자폭은 1분기 대비 축소될 전망이다. AS 부품은 매출 증가와 우호적 환율, 그리고 관세율 인하 효과 등이 이어지면서 26%대의 고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사업은 2028년 미국에서 액추에이터 생산 시작. 추가 아이템들도 검토 중

현대모비스는 BD의 아틀라스 모델형 액추에이터 공장을 미국에 건설한다. 연간 35만대 규모인데, 로봇 대당 30여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로봇 1.1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아틀라스 초기 생산능력 목표인 3만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2교대 전환 및 라인 추가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이고, 관련 매출액은 5천억원~1.5조원 수준이 가능하다(액추에이터 개당 평균 1천달러, 아틀라스 생산 1만대~3만대 가정). 이외에도 그간 축적한 구동/제어 기술과 양산/제조 노하우에 기반해 그리퍼/배터리시스템/제어기/퍼셉션 모듈 등도 검토 중이고, BD 이외 로봇을 대응할 액추에이터도 개발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14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상향)

목표주가(12M) 45,000원(유지)
현재주가(7.13) 34,25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6.93
52주 최고/최저(원)	67,900/34,250
시가총액(십억원)	21,987.3
시가총액비중(%)	0.39
발행주식수(천주)	641,964.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461.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9.3
외국인지분율(%)	20.66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외 1인	51.11
국민연금공단	6.8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8,502.1	99,907.6
영업이익(십억원)	9,761.7	13,465.1
순이익(십억원)	5,836.1	8,190.9
EPS(원)	8,949	12,547
BPS(원)	82,281	93,61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93,398.9	97,429.3	97,549.0	97,689.2
영업이익	8,364.7	13,490.6	7,953.7	9,918.8
세전이익	5,256.5	11,586.9	5,461.1	7,469.6
순이익	3,491.7	8,544.9	4,042.3	5,602.2
EPS	5,439	13,311	6,297	8,727
증감율	흑전	144.73	(52.69)	38.59
PER	3.69	3.55	5.44	3.92
PBR	0.32	0.63	0.42	0.38
EV/EBITDA	6.48	5.79	7.13	6.44
ROE	9.22	19.40	8.09	10.27
BPS	62,177	75,035	80,705	89,202
DPS	213	1,542	230	25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한국전력 (015760)**정책 방향이 바뀐다****목표주가 45,000원 유지,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한국전력 목표주가를 기존 45,000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승여력 확대에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다. 원/달러 환율은 부담 요인이거나 원자재 가격 지표가 고점 대비 안정되면서 추정치 하향 조정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연료비단가 상승, 원전 이용률 감소에도 분기 평균 SMP가 전년대비 3.7% 하락했기 때문이다. 향후 원가 부담은 3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기준 PER 5.4배, PBR 0.4배다.

2Q26 영업이익 1.8조원(YoY -14.4%) 컨센서스 부합 전망

2분기 매출액 22.0조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할 전망이다. 전력판매수익은 산업용 수요 둔화 및 판가 약세로 역성장이 예상되나 해외사업수익 등 기타매출이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 영업이익은 1.8조원으로 전년대비 14.4% 감소할 전망이다.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는 각각 4.8조원, 8.2조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 4.9% 감소로 추정된다. 연료비 증가는 유연탄 개별소비세 할인 종료 및 수입단가 상승이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입 전력비 감소는 기저발전 비중 하락에 따른 구입전력량 증가에도 분기 평균 SMP가 약세를 기록함에 따라 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연탄 발전소 이용률은 41.0%로 3.2%p 상승, 원전 이용률은 73.6%로 전년대비 8.8%p 하락할 전망이다.

AI DC만 감안해도 2025년 대비 전력수요 20% 이상 증가

3대 메가프로젝트 중 AI DC 투자계획의 경우 2029년 1단계 8.4GW, 2035년 2단계 10GW로 구성된다. 1GW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을 6.1TWh로 가정하면 18.4GW 설비에 대응되는 전력수요는 약 113TWh다. 2025년 전력사용량이 550TWh였던 점을 감안하면 20%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및 피지컬 AI 투자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지 가운데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유의미한 규모의 기저전원 투자가 언급되는 중이다. 발전 Mix 변화로 한국전력 이익 체력의 근간이 개선될 수 있다. 과거 기저전원 비중을 줄이는 정책으로 장기 실적 기대치가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중장기 밸류에이션 회복 구간으로의 진입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026년 07월 14일 | 기업분석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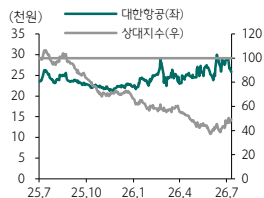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41,000원(상향)**
현재주가(7.13) **25,85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6.93
52주 최고/최저(원)	30,000/21,000
시가총액(십억원)	9,518.5
시가총액비중(%)	0.17
발행주식수(천주)	388,558.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53.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9.1
외국인지분율(%)	22.28
주요주주 지분율(%)	
한진칼 외 2인	27.06
국민연금공단	8.1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7,418.2	27,220.9
영업이익(십억원)	866.6	2,088.2
순이익(십억원)	197.5	1,285.5
EPS(원)	587	3,344
BPS(원)	27,963	30,624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870.7	25,225.5	28,255.6	28,561.1
영업이익	2,110.2	1,113.6	1,021.3	2,351.0
세전이익	1,836.2	823.5	350.0	1,991.0
순이익	1,317.3	779.7	279.3	1,556.2
EPS	3,567	2,111	755	3,994
증감율	24.16	(40.82)	(64.23)	429.01
PER	6.34	10.68	34.24	6.47
PBR	0.80	0.76	0.89	0.80
EV/EBITDA	5.48	6.51	6.16	4.35
ROE	13.17	7.28	2.50	12.96
BPS	28,356	29,659	29,191	32,434
DPS	750	750	750	75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대한항공 (003490)**2Q26 Re: 유류비가 두배인데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2분기 별도 영업이익의 2,618억원(-34%)으로 서프라이즈**

대한항공 2분기 별도 매출액은 26% (YoY) 증가한 5조 199억원, 영업이익은 34% 감소한 2,618억원으로 당사 추정치(영업이익 650억원)와 컨센서스를 모두 큰 폭 상회했다. 전반적으로 항공화물이 2분기를 견인했으나, 추정치를 상회한 것은 국제선 호조 영향이 더 컸다. 2분기 국제선 매출액은 20% (YoY) 증가한 2조 7,274억원이었는데, RPK가 8% 증가했고, 운임이 11% 상승한 138원/km을 기록했다. 올라간 항공권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금번 실적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항공 화물 매출액은 46% (YoY) 증가한 1조 5,419억원으로, 운임이 703원/km(+42%)까지 상승하며 2022년 물류대란 시기(약 800원/km)에 준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비용은 유류비가 111% (YoY) 증가한 영향으로 33% (YoY)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유류비 상승을 대응하는 탑라인 증가 효과가 빨랐고 컸다는 판단이다. 영업 외로는 외화환산손실(환율 10원 상승시 550억원 규모 외화환산손 발생)이 크게 나타나며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한 -973억원이었다.

국제선 서프라이즈의 이유: 단거리/장거리 모두 좋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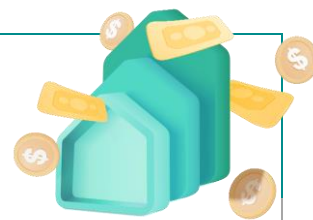
2분기 국제선 전 노선 매출 신장세가 크게 나타났다. 일본/중국 노선 매출액이 각각 32%/31% (YoY) 증가했고, 미구/구주 노선 매출액이 22%/11% 증가했다. LCC가 단거리 노선 운임 인상을 거의 하지 못한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쟁 이후 FSC에 대한 선호도가 한층 높아졌고,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의 매출액의 YoY 증가폭이 컸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3분기에는 순차적으로 미주 노선의 단가 상승도 반영될 예정이고, 유류할증료가 8월부터는 4월 미만 수준으로 떨어지겠으나 수요가 강한 이상 여객/화물 운임은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분기 유류비는 2분기 대비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은 37% (YoY) 증가한 5,170억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1.7조원(+12% (YoY))으로 상향한다.

수요의 비탄력성 확인, 목표주가 41,000원으로 상향

프리미엄 항공 수요와 항공 화물 수요의 비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2분기였다. 2026년뿐 아니라 2027년에 대해서도 비탄력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2027년 대한항공 연결 영업이익은 2.3조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여 대한항공 목표주가를 41,000원(기존 38,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격화된 이란 분쟁, 비우호적 환경

건설 Weekly | 2026.7.14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4.4%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 외인이 모두 매수했다. 기관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중심으로 매수, 외인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고루 매수했다. 코스피가 하락한 가운데, 건설주는 코스피에 비해 덜 하락했다. 종목별로는 GS건설이 동해 AI데이터센터 기대감에 힘입어 커버리지 중 나홀로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8.9로 2주 만에 반등했다(+0.5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45주 연속 상승(+0.11%), 전세가는 56주 연속 상승했다(+0.13%). 수도권 매매가는 71주 연속 상승(+0.22%), 전세가는 72주 연속 상승했다(+0.20%). 서울 매매가는 76주 연속 상승(+0.30%), 전세가는 73주 연속 상승(+0.31%)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보합, 기타지방 매매가는 상승했다(+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49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45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5%, +0.04%).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8%), 인천(+0.03%) 상승, 대전, 부산 보합, 대구(-0.01%), 광주(-0.02%)가 하락했다.
-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통해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4~16일은 국토부, 금융위, 재경부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3일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전월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탄, 구리, 기흥에 토허제 및 규제지역 지정한 이후의 횡보다. 보유세와 실거주주택과 비거주, 다주택 간의 차이, 초고가실거주 주택, 거래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2027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일부터 주담대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했으며, 신한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와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일시 중단하여 대출한도를 줄였다.
- 이란과 미국간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리스크가 재발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미국의 보복, 이란의 재보복 등 교전이 재개되었고, 이 결과로 유가는 다시 70불 이상으로 상승했다. 건설 섹터에서 종전 후 재건과 지정학적 에너지 재편에 따른 발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관련 종목 매수의 센티를 악화시키고 있다. 종전 후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 중동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meet). 영국 터너앤타운젠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중동 건설비용은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 EP 관련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과 운송비 및 화물 증가, 해상 운송 경로 차질에 따른 납기 지연 등의 리스크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컨설팅회사 매튜스의 3Q26 UAE/사우디 건설시장 보고서에도, 가격 상승을 전망한다. 그 배경에는 수입자재가격, 화물운송비, 연료비, 보험비 상승 등을 꼽았다.
-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반기 나타날 수 있는 상승 재료는 데이터센터다. 특히 GS그룹의 동해 AI데이터센터 관련 뉴스(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련 종목으로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재건(해외EPC), 원전, 주택 등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2026년 7월 13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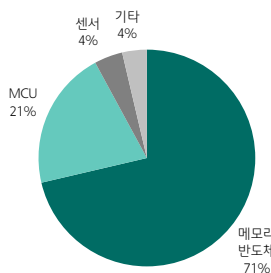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628.39 CNY
CP(7.10) 612.00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Shanghai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gigadevice.com
시가총액(십억CNY)	386.2
시가총액(조원)	85.5
52주최고/최저(CNY)	846.66/113.82
주요주주 지분율(%)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6.19
Zhu Yiming	5.3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7.1 133.7 417.1
상대	28.0 137.8 403.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7,356	9,203	18,970	24,307
영업이익	684	1,582	7,691	9,918
순이익	1,103	1,648	6,586	8,608
EPS(CNY)	1.7	2.5	8.9	12.4
EPS(YoY, %)	591.7	49.4	257.8	39.7
ROE(%)	7.0	9.3	29.7	27.8
PER(배)	64.3	86.4	62.1	44.4
PBR(배)	4.3	7.5	14.3	10.8
배당률(%)	0.0	0.4	0.4	0.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기가디바이스(603986.CH)

글로벌 공급 공백으로 급성장 중인 레거시 메모리 기업

CXMT 회장이 설립한 특수 메모리, 레거시 DRAM 팹리스

기가디바이스(GigaDevice)는 중국 레거시 DRAM, SLC NAND Flash, NOR Flash, MCU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2005년 CXMT의 창업자 주이밍 회장이 설립한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며, 현재 주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겸직하며 같은 창업자 아래 기가디바이스가 CXMT에 소수 지분(1.8%)을 투자하고, CXMT가 기가디바이스의 DRAM을 위탁생산하는 전략적 협업 관계에 있다. 현재 CXMT는 DDR5/LPDDR5 이상 범용 DRAM과 HBM 사업에 집중하고, 기가디바이스는 NOR Flash, SLC NAND 등 특수 메모리, DDR4/LPDDR4 이하의 레거시 DRAM, MCU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2Q26 실적 컨센서스 대폭 상회

기가디바이스가 최근 발표한 2Q26 잠정 매출액은 73억위안(YoY +226%)으로 컨센서스를 46% 상회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54억위안(YoY +1,496%)으로 컨센서스를 77% 상회했다. 2분기 지분 투자 중인 반도체 기업의 평가이익 약 20억위안이 순이익에 반영되었으며,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34억위안으로 순이익률은 47%를 기록했다. 2분기 실적 호조는 주력 제품 ASP 상승과 점유율 확대에 기인한다. 글로벌 상위 메모리 업체들이 HBM, DDR5, 3D NAND 중심으로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레거시 DRAM과 NAND 제품 공급이 타이트해졌고, 이로 인해 최근 1년 사이 기가디바이스의 SLC NAND ASP는 약 5배, 레거시 DRAM ASP는 약 10배 상승했다.

하반기 ASP 상승과 맞춤형 DRAM 양산이 기대 요인

기가디바이스는 하반기에도 1)주요 글로벌 공급업체들의 공급 축소에 따른 DDR4-DDR3, NOR Flash, SLC NAND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2)맞춤형 3D DRAM의 양산 개시 등에 기인해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키옥시아와 마이크론의 레거시 NAND 제품 양산 축소 결정으로 SLC NAND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가디바이스는 CXMT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향후 2~3년 내 DDR4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소수 업체 중 하나이며, DDR4-LPDDR4 제품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DRAM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NOR Flash 사업 부문은 CXMT를 포함한 파운드리 파트너사들의 생산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재 약 20%에서 3~5년 내 25%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3D DRAM 제품 대량 출하는 향후 주가 상승의 잠재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스마트콕핏, AI PC, 로봇 등 AI 관련 맞춤형 DRAM도 2026년 하반기부터 매출에 기여할 전망이며, 향후 매출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틈새 DRAM 시장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ASP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7월 13일 | Global Equity

델타항공 (DAL.US)

모든 비용이 높아지며 LCC 대비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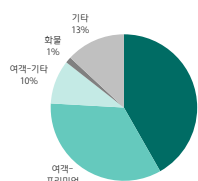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04.96 USD
CP(7.10) 87.39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NYSE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여객 항공사
홈페이지	www.delta.com
시가총액(십억USD)	57.5
시가총액(조원)	86.6
52주최고/최저(USD)	95.7/50.5
주요주주 지분율(%)	
뱅크드	11.37
블랙록	6.71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5.2 23.0 54.3
상대	3.3 14.5 33.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63,364	63,364	65,920	68,371
영업이익	5,822	5,822	6,176	8,045
순이익	5,005	5,005	3,852	5,508
EPS(USD)	5.8	6.2	6.4	8.7
EPS(YOY, %)	0.0	6.7	3.4	35.9
ROE(%)	26.2	27.7	18.6	21.5
PER(배)	10.3	11.2	13.6	10.0
PBR(배)	2.6	2.2	2.3	1.9
배당률(%)	0.8	1.0	0.9	0.9

주: 영업이익, 순이익은 조정(Non-GAAP) 기준
자료: 델타항공, LSEG,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Q26 Re: 유류비 전가와 마진 회복에 자신감

조정 매출액 176.7억달러(YoY +14%), 조정 EPS 1.56달러로 모두 예상(175.3억, 1.48)을 상회했다. TRASM(가용좌석마일당 총매출)은 국내선 운임 상승으로 +12.4% 증가했으며 국제선은 남미 노선 주도로 8% 증가했다. 국제선 중 비중이 가장 높은(63%) 대서양 노선은 미국 판매 비중이 80%를 넘어가고 있으며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의 여객 시즌으로 수요가 옮겨지면서 계절성이 완화되고 있다. 갤런당 평균 연료 가격은 3.93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동사의 강점인 자체 정제소의 높은 정제마진이 상쇄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승무원 비용 증가로 인해 비연료 단위당 비용도 YoY +6.8% 증가했다.

월드컵 인바운드 수혜 있지만 규모는 작아

메인 캐빈(이코노미) 매출 68.5억 달러(+7.9%), 프리미엄 매출 69.2억 달러(+17.3%)로 프리미엄 매출이 여전히 견고했다. 메인 캐빈도 6월 기준 단위당 매출이 10%대 중반 증가했다. 월드컵을 위한 증편이 일부 있었으나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 매출 다각화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비즈니스 수요도 다양한 업종에서 증가했다. 비즈니스 대비 가격 민감도가 높은 일반 여행 수요를 겨냥해 일정 변경 등이 불가능하고 좌석 지정이 제한되는 좌석을 신설해 목표 고객별 좌석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저가 수요 흡수와 고 수익 비즈니스 고객 매출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 FY26년 연간 전망 유지

3분기 매출은 YoY 10%대 중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예상(+13%)을 소폭 상회했으며 OPM 가이던스도 11~13%로 컨센(10%)을 상회했다. 프리미엄과 메인 캐빈 모두에서 예약 곡선과 TRASM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신중한 캐파 증가(3분기 +1%, 4분기는 국제선 중심 +2~3%)와 운임 강세 지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연료 단위당 비용도 3분기에 완만하게 개선되기 시작해 공급 좌석 증가율이 정상화되는 4분기에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하반기 OPM 두 자릿수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FY2026년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로 6.50~7.50달러(+20.3%)를 유지했다. 10년 전 연료비 변동성이 높았을 당시에는 LCC가 낮은 비연료비용을 바탕으로 연료비에서 상대적 경쟁 우위를 가졌으나 현재는 인건비, 공항 이용료, 항공기 등 모든 비연료 비용이 높아지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LCC는 최소 5%의 운임 인상을 통해 현재 유가 환경에서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해졌다. 프리미엄 포지션과 정유시설을 포함해 다각화된 매출원을 보유한 동사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가 정당한 시점이다. 12M 선행 PER 13.6배로 여전히 mid-cycle 기준 범위 내 위치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13	285,000	신규	-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7/13	2,180,000	신규	-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신규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성SDI (006400.KS)	7/13	434,000	신규	-	- 데이터센터향 BBU/ESS 증가와 유럽 EV 배터리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 - StarPlus Energy를 활용한 현지 생산, LFP 라인 전환을 통해 미국 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 (003490.KS)	7/13	26,750	신규	-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7/13	1,139,000	신규	-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키움증권 (039490.KS)	7/13	336,000	신규	-	- 국내 중시 거래대금 확대의 직접 수혜로 1분기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4,764억원 기록 -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신용융자 이자수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
에이블씨엔씨 (078520.KS)	7/13	10,200	신규	-	- 미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글로벌 매출 비중 70% 돌파로 외형 성장 지속 - 국내 저수익 채널 구조조정 효과와 주주환원 강화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심텍 (222800.KQ)	7/13	122,700	신규	-	- 메모리 기반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올릭스 (226950.KQ)	7/13	123,200	신규	-	- 로레알·Weiss의 1,108억원 투자로 siRNA 기술력 입증 및 R&D 재원 확보 - OLX702A 2상 진입과 OLX104C 임상 결과 등 하반기 모멘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26%	+3.31%p	+72.19%	+6.2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13	285,000	신규	-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신규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효성중공업 (298040.KS)	7/13	2,924,000	신규	-	- 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 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
S-Oil (010950.KS)	7/13	132,100	신규	-	8월 OSP 마이너스 전환과 투자 종료로 이익-배당 매력 확대 기대 - 유가 약세에 따른 사한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과 순차입금 축소 기대
신세계 (004170.KS)	7/13	629,000	신규	-	-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터넷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심텍 (222800.KQ)	7/13	122,700	신규	-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7/13	136,200	신규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7/6	2,425,000	2,186,000	-9.86%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7/6	119,100	106,600	-10.50%	- 국내 중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중심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 높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 기조에 더해 리테일 고객자산 확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103,000	-1.43%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102,800	3.32%	-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크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04%	-1.30%p	+44.18%	-21.8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7,095	59.3%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040	-14.0%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1,225	23.1%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150	39.6%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07.73	79.2%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64.36	-20.3%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24.35	-6.7%	-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7.76	15.8%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일본 5월 광공업생산 F (E --, 이전치 -1.7%) - 중국 6월 수출 (E 18.2%, 이전치 19.4%) - 중국 6월 수입 (E 24.2%, 이전치 27.4%) - 미국 6월 CPI (E 3.9%, 이전치 4.2%) - 미국 6월 근원 CPI (E 2.9%, 이전치 2.9%) - 미국 NFB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5.3)	- 한국 6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24.8%) - 한국 6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6.9%) - 한국 6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 일본 5월 핵심기계수주 (E --, 이전치 15.6%) - 중국 6월 소매파매 (E --, 이전치 -0.6%) - 미국 6월 PPI (E --, 이전치 6.5%) - 유로존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1%)	- 한국 기준금리 결정 (E 2.75%, 이전치 2.50%) - 미국 베이지북 공개 -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 미국 6월 소매파매 (E 0.0%, 이전치 0.9%)	-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5.4%) -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 이전치 49.5) - 유로존 6월 CPI (E --, 이전치 2.8%) - 유로존 6월 근원 CPI (E --, 이전치 2.4%)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중국 7월 대출우대금리 (E 3.0%, 이전치 3.0%) - 미국 6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0.1%)	- 한국 7월 수입 20일 (E --, 이전치 23.2%) - 한국 7월 수출 20일 (E --, 이전치 60.4%) - 유로존 7월 ZEW 경기심리지수 (E --, 이전치 9.5)	한국 7월 PPI (E --, 이전치 8.5%)	- 한국 2분기 GDP A (E --, 이전치 3.8%) - 유로존 7월 단기수신금리 (E --, 이전치 2.25%) - 유로존 7월 소비자가대지수 (E --, 이전치 -17.7)	- 일본 6월 CPI (E --, 이전치 1.5%) - 일본 7월 S&P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8) - 일본 7월 S&P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2) - 미국 7월 S&P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9) - 미국 7월 S&P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2) -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7.3%)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중립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